

스타들이 펼치는 선의의 경쟁은 치열하지만, 관객과 시청자에게는 지켜보는 즐거움을 안겨주기 마련이다. 스타들이 그만큼 자신들의 무대를 통해 보는 이들의 시선을 선점하기 위한 더욱 뜨거운 열정을 드러내는 덕분이다. 여기, 관객과 시청자의 즐거움을 위해 깊은 진정성으로 카메라 앞에 나서 흥행 맞대결을 펼치는 스타들이 있다. 1986년생 동갑내기 김선호와 류준열,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기과 09학번(2009년 입학) 동기생인 박정민과 변요한이다. 김선호와 류준열은 각각 tvN '갯마을 차차차'와 JTBC '인간실격'으로, 박정민과 변요한은 15일 개봉하는 영화 '기적'과 '보이스'로 자신들의 매력을 한껏 뽐내며 시청자와 관객 앞에 다가서고 있다.

살인미소 '홍두식'이나, 목직한 눈빛 '강재'나

(김선호)

(류준열)



▶김선호

'갯마을'서 아기자기 로맨스 작품마다 대박, 뒤늦게 두각

'로코킹 VS 멜로킹'

요즘 김선호와 류준열의 주말 안방극장 대결 구도를 요약하면 이렇다. 김선호는 '갯마을 차차차'에서 신민아와 아기자기한 로맨스를 펼치고, 류준열은 '인간실격'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전도연과 짝을 맺는다. 각각 쾌활하고 능청스러운 매력과 사연 많은 목직한 눈빛으로 안방극장 여심을 사로잡고 있다.

올해 35세 동갑내기인 이들은 최근 안방극장과 스크린에서 떠오르는 '기대주'로 꼽히고 있지만, 그러기까지 과정은 극과 극 개성만큼이나 다르다.

김선호는 2009년부터 8년간 연극무대를 누볐다. 공연계에서는 '대학로 아이돌'로 불릴 만큼 유명했지만, 시청자 앞에 서기는 2017년 KBS 2TV 드라마 '김과장'이 처음이었다. "연극이 고향"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할 정도로 연극에 대한 애정이 깊어 안방극장에도 뒤늦게 발을 디뎠다.

시작은 다소 늦었지만 이후로는 줄곧 탄탄대로다. 2018년 tvN '백일의 낭군님'과 지난해 '스타트업'으로 연달아 화제몰이에 성공했다. 모두 여주인공을 짝사랑하는 캐릭터로 시선을 끌며 '서브

남주(두 번째 남자주인공)아이' 열풍을 이끌었다. 2019년 12월부터 고정 멤버로 출연 중인 KBS 2TV 예능프로그램 '1박2일' 시즌4로 친근한 매력도 뽐내고 있다.

가파르게 성장세를 그려온 김선호에 비해 류준열은 시작부터 '스타덤'이었다. 2015년 드라마 데뷔작 tvN '응답하라 1988'의 주연을 맡아 곧장 스타가 됐다. 실제 교제 중인 헤리를 두고 극중 친구인 박보검과 삼각관계를 그려 18.8% (닐슨코리아)의 시청률을 거뒀다.

안방극장의 '라이징 스타' 자리를 뒤로 하고, 2016년부터는 영화에 몰두해왔다. '더 킹', '택시운전사', '리틀 포레스트', '독전', '행반' 등 주연작만 12편이다. 5년 만에 돌아온 안방극장에서도 9월 1주차(8월30일~9월5일) 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7위(굿데이더코퍼레이션) 등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연기 외에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사는 팬들과 소통하는 배경으로 통한다. 취미로 찍은 사진작품을 한데 모아 전시회를 열거나 평소 관심을 쏟아온 환경보호 캠페인을 홍보하며 팬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류준열

'인간실격'서 진한 멜로 연기 5년만의 드라마 복귀 존재감

1986년생 동갑내기 김선호(왼쪽 사진)와 류준열이 각각 tvN '갯마을 차차차'와 JTBC '인간실격'의 주연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 | tvN·JTBC

천재 고교생 박정민 vs 조직 잠입한 변요한

박정민은 다니던 대학(고려대)에서 자퇴한 뒤 다시 입시를 치렀다. 이미 한 차례 낙방의 경험이 있었다. 오로지 연기를 하고 싶었다. 영화과에서 공부했지만 정작 우수한 성적은 부전공이었던 연기과 수업에서 나왔다. 결국 연기과로 옮아갔다.

변요한은 어린 시절 말을 더듬었지만 무대에만 서면 그렇지 않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사춘기에 연기를 꿈꿨다. 중학생 시절 연극에 출연한 뒤였다. 예고 진학을 바랐지만 부모의 만류로 포기했다. 고교생 때 중국 유학을 한 그는 군 복무 도중 휴가를 나와 한예중 수시전형에 응시했다. 부모는 알지 못했다. 결국 허락을 받고 한예중 연기과에 입학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만났다. 함께 수업을 듣고 서로 '감독'과 '배우'로도 작품을 만들어갔다.

이들이 한예중 동기의 우정을 잠시 뒤로하고 15일 각각 주연 영화 '기적'과 '보이스'로 흥행 맞대결을 펼친다. 박정민은 '기적'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경북 봉



배우 박정민(왼쪽 사진)과 변요한이 15일 영화 '기적'과 '보이스'로 각각 관객을 만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09학번 동기로 나란히 주연작을 내놓는다. 사진제공 | 롯데엔터테인먼트·CJ ENM



박정민의 '기적'·변요한의 '보이스' 나란히 15일 극장 개봉 한예중 연기과 09학번 동기...우정은 뒤로한채 맞대결 관심

화의 마을에 간이역을 세우기 위해 애쓰는 천재 고교생 역을 연기했다. 변요한은 보이스피싱 피해로 모든 것을 잃은 뒤 이를 되찾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잠입하는 청년으로 '보이스'를 완성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박정민은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것만이 내 세상' '동주' 등으로 스크린 주역의 자리를 꿰찼다. 변요한 역시 드라마 '미생'을 거쳐 영화 '자살언어'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등으로 위상을 확고히 해왔다.

이들은 허진호·임상수·김태웅·봉준호

감독 등을 배출한 한국영화아카데미의 작품으로 나란히 이름을 알렸다. 박정민은 2011년 윤성현 감독의 한국영화아카데미 졸업작품 '파수꾼'을 통해 이제훈과 함께 관객 시선을 끌었다. 변요한도 2014년 한국영화아카데미의 홍석재 감독이 연출한 '소셜포비아'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런 두 사람이 함께 호흡을 맞춘 무대도 있다. 2014년 한국영화아카데미 출신 김정훈 감독의 '들개'이다. 이들은 한국영화의 미래를 꿈꾸는 한국영화아카데미 출신 연출자들과 손을 잡으면서 진정성 깊은 연기자로도 각인됐다.

박정민은 당시 "생면부지에서 친해지는 부분이 생략돼 출몰이 좋았다"면서 "경쟁심은 전혀 없다. 앙상블이 좋아야 영화가 잘 나온다"고 말했다. 변요한도 오히려 "서로를 정말 잘 알아 문제"였을 정도였으며 "갑자기 배우가 아닌 학교 동기로 보일 때가 있었다. 이를 빼곤 호흡이 잘 맞았다"고 화답했다. 윤유서 기자 tadada@donga.com

'집사부일체' 대선 유력 후보 3인 특집 선배

대선 유력 후보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 출연한다. 9일 SBS는 "20대 대선 주자 가운데 현재 여론조사 결과 가장 지지율이 높은 세 후보가 '사부'로 출연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지율 순위는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의 최근 6개월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대선 주자 특집은 19일부터 3주간 윤석열(19일), 이재명(26일), 이낙연(10월3일) 후보 순으로 방송한다. 이들은 가수 이승기·개그맨 양세형·격투기 선수 김동현 등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엔플라잉 멤버 5인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



엔플라잉

5인조 그룹 엔플라잉의 멤버들이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9일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엔플라잉의 멤버 차훈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4일 PCR(유전자증폭) 검사로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지만, 최근 건강에 이상을 느끼고 다시 검사를 실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엔플라잉의 또 다른 멤버 이승협·유희승·서동성은 3일, 김재현은 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종국, 유튜브 수익금 7000만원 기부



김종국

가수 김종국이 유튜브 수익금 7000만원을 기부했다. 9일 김종국은 유튜브 계정 '김종국 GYM JONG KOOK' 계정을 통해 "최소 제작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기부했다"면서 "구독자와 약속했던 기부를 늦었지만 실천한다. 좋은 일에 쓰이길 바라며 신중하게 결정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부증서도 함께 공개했다. 김종국은 6월17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9월 현재 213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각종 운동 방법을 공유한 유튜브 영상은 많게는 1000만뷰를 넘기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연상호 감독 '지옥' 런던영화제 공식 초청



지옥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이 10월 초 개막하는 제65회 BFI(영국영화협회) 런던영화제의 '시리즈 스텝' 부문에 공식 초청됐다. '지옥'은 지옥의 사자들에게 지옥행을 선고받아 혼란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다. 9일(한국시간) 영화제 측은 "독보적인 창의력을 가진 특별한 프로젝트"라고 초청 이유를 밝혔다. 드라마는 영화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이 연출하고, 드라마 '송곳'의 최규석 작가가 함께 극본을 썼다. 유아인, 박정민, 김현주, 원진아 등이 주연한다. 9일 막을 올린 캐나다 토론토국제영화제와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선보인다.

中 "아이돌 규제, 한류 겨냥한 것 아니다"

최근 연예인과 팬덤에 대한 중국 당국의 고강도 규제와 관련해 주한중국대사관이 "한류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6일 방탄소년단 등 케이팝 가수들의 현지 팬클럽 웨ibo 계정이 정지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9일 "중국 정부가 연예계 및 팬덤의 혼란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청량'(淸朗·인터넷 문화운동) 특별 행동을 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질서와 양속에 어긋나거나 법률과 법칙을 위반하는 언행만을 겨냥하는 것이지만 다른 나라와의 정상적인 교류에 지장이 되지 않을 것이다"면서 "한중 문화 교류의 해"와 내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국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문화 교류를 강화하고 협력을 권장하며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축의금 액수·면접 예절 콕콕...어른이 위한 '딩동댕대학교' 인기

(어른+어린이)

자이언트 팽TV 만든 PD 의기투합 황광희와 두 캐릭터 입담에 웃음폭탄

팽수를 히트시킨 EBS가 또 다시 어른들을 위한 예능 콘텐츠를 내놔 화제다. 최근 시즌2로 새 단장한 유튜브 콘텐츠 '딩동댕대학교'이다. 축의금 액수부터 면접 예절, 회사 생활의 비애 등 성인들의 고민을 다뤄 이용자들로부터 '색다르다'는 시선을 받고 있다.

'딩동댕대학교'는 팽수가 주인공인 '자이언트 팽TV'를 만든 이슬예나·박재영 PD가

의기투합해 선보인 콘텐츠다. 3월부터 5월 까지 시즌1을 내놨고, 지난달 포맷을 다듬었다. 방송인 황광희가 진행자로 나서 손인형 캐릭터인 꼬끼리 '깁'·부엉이 '빙철'과 이용자들의 각종 고민을 풀어간다.

이들의 솔직한 입담이 콘텐츠 인기의 핵심이다. 황광희는 "축의금의 기본은 5만원인데, 교통비 들면 2만원을 빼라" 등 실용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깁철과 빙철은 올바른 양치법을 알려주며 "뽀뽀하게 닦으면 이빨 전부 나가기"라는 가사의 노래를 부른다. 어린이프로그램 '딩동댕유치원'에서 자주 봐온 캐릭터가 선보이는 반전이 웃

음을 자아낸다. 참신한 기획으로 호평을 얻으면서 콘텐츠는 영상마다 10만뷰를 넘기고 있다. 3개월 남짓 짧게 운영했지만, 올해 한국방송대상 뉴미디어 부문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9일 연출자 이슬예나 PD는 "시청자에게 익숙한 '딩동댕유치원'의 콘셉트로 친근감을 불러일으키고, 웃으면서도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MZ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자)와 접점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들었다.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플랫폼 이



황광희

용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20초 분량의 짧은 영상도 따로 만든다. 최근에는 저스트비 등 신인 아이돌 그룹도 게스트로 출연시켰다. 이 PD는 "콘텐츠의 지속성과 확장을 위해 황광희와 깁철·빙철이 구독자와 유대감을 쌓아가는 과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